

차세대 K-뷰티 한눈에… 호남 최대 ‘뷰티산업전’ 개막

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서 113개사 152부스

KOTRA 바이어·무신사 입점 1대1 상담회

AI 피부진단·퍼스널컬러 등 체험행사 풍성



인공지능(AI) 피부·두피 스캐너, 맞춤형 뷰티테크 기기, 이너뷰티 제품 등 차세대 케이(K)-뷰티의 정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선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Jeonnam Gwangju Beauty Expo

2026)’을 2일부터 4일까지 사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호남 최대 규모로 열리는 첫 번째 뷰티축제다. 행사는 총 113개 기업이 참여해 152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 현장에서는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헤어, 네일 제품은 물론 케이(K)-뷰티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피부·두피 스캐너, 맞춤형 뷰티테크 기기, 이너뷰티 제품 등 차세대 케이(K)-뷰티의 정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코트라(KOTRA) 연계 온라인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는 실제 수입 계약 권한과 명확한 구매 의사를 가진 15개국 유망 바이어가 참여해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또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인 ‘무신사’ 입점 1대1 상담회가 열려 참가기업의 유통망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뷰티 세계 패스트 트랙(K-Beauty Global Fast-Track)’ 세미나에서는 해외 인증, 빅데이터 활용 시장 진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실무 중심 정보를 공유한다. 몽골 등 주요 해외 바이어 대상 광주 지역 우수화장품 생산시설(CGMP) 산업 시설도 함께 진행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기업·

소비자 거래(B2C)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같은 기간 ‘2026 피부미용뷰티경진대회’와 ‘2026 네일엑스포’가 동시에 열려 전국의 미용 전문가들이 집결해 행사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메인 무대에서는 100인의 시니어 모델이 펼치는 케이(K)-뷰티 퍼포먼스 및 런웨이스(3일), 케이(K)-뷰티 캐릭터 라이브 퍼포먼스(4일) 등이 펼쳐진다. 체험존에서는 인공지능(AI) 피부·두피 측정 및 퍼스널 컬러 진단, 나만의 맞춤형 향수 만들기, 케이(K)-뷰티 스타일링 & 특수분장, 무료 네일케어 체험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매일 선착순 입장객 1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사전등록 쿠폰, 스페셜 경품 추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문 인증, 스탬프 투어 등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참가 문의는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 사무국(062-611-2255/2256) 및 누리집(www.gibeautyexpo.com)에서 가능하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장은 “지역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세계 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부동산원 청약홈, 공공혁신 이노스타 2년 연속 인증

누리집 전면 개편…편의 개선

청약 신청·당첨 조회 등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 올해 공공혁신서비스 이노스타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낸 성과다.

공공혁신서비스 이노스타는 한국경영인증원이 국민과 전문가의 2단계 평가를 거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공서비스를 선정하는 인증 제

도다.

청약홈은 주택 청약 신청부터 당첨자 조회, 청약자격 확인, 분양 일정과 제도 안내까지 청약 전 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부동산원은 올해 청약홈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복잡했던 청약 이용 과정을 정비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과 기능을 개선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확대했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야 하는 절차를 줄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청약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지원본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약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국세청은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국세청,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력체계 구축

전남광주·전북 소진공과 업무협약…세금애로 수집·교육 등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촘촘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도열),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혁주)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

사항의 수집 및 처리,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광주국세청 주관 납세자세금교실에 상호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과 세정지원을 공동 홍보하고, 전통시장 장비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도열 본부장과 이혁주 본부장은 인사를 통해 “공단의 정책 지원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하나로 엮이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힘이 될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부터 하나씩 협력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철호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안전한 임대주택 만든다”

LH 광주전남본부 소통간담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지역 내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주거행복지원센터장과 업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거행복지원센터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지역 LH 임대주택 8만3000여호의 관리 현황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대책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공동주택 가스 안전관리,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입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행복지원센터의 단지 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도 공유했다. LH와 주거행복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LH, 광주선운2 상업·자족용지 6필지 공급

활용도 개선…오피스텔·노유자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자족시설용지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토지 공급에 나선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 4필지와 자족시설용지 2필지 등 총 6필지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은 상업용지 8958㎡와 자족시설용지 7817㎡ 등 총 1만6775㎡ 규모다. 용지별 허용용도와 필지 규모 등을 조정해 매입 부담을 낮추고 토지 활용도와 사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상업용지는 기존 대규모 필지를 분할해 2필지에서 4필지로 공급 규모를 늘렸다. 필지별 면적은 1998~2355㎡이며, 공급 예정 가격은 각각 약 79억~88억원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일부 필지에는 대지분할가능성을 반영해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추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과 요양병원 등 허용 용도도 확대했다. 필지 규모를 세분화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자족시설용지는 2필지, 총 7817㎡ 규모로 공급된다. 면적은 각각 3395㎡와 4421㎡이며, 공급가격은 약 67억원과 82억원이다. 공급은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족시설용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주용도에 노유자시설을, 부용도에 병원을 추가했다. 주용도와 부용도의 비율도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설 조성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도와 배치 범위가 넓어져 토지 활용 여건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는 KTX 광주송정역과 무안광주고속도로, 운수IC 등을 통해 광주 시내·외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점도 이번 용지 공급의 관심 요인이다.

광주선운2지구는 지난 7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토지 거래 시 별도의 허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며, 개찰 및 당첨자 발표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